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카타르

### State of Qatar

2023년 4월 25일 | 조사역(G3) 동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2천 km <sup>2</sup> 	<b>인구</b> 267만 명 (2022 <sup>e</sup> ) 	<b>정치체제</b> 세습군주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중립노선 
<b>GDP</b> 2,255억 달러 (2022 <sup>e</sup> ) 	<b>1인당GDP</b> 84,425달러 (2022 <sup>e</sup> ) 	<b>통화단위</b> Qatari Rial (QR) 	<b>환율(U\$기준)</b> 3.64 

□ 아라비아 반도의 동부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타르는 인구 267만 명, 국토 면적 12천 km<sup>2</sup>에 불과한 소국임.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온 이주민이 많고, 수니파 이슬람교 외에도 기독교를 인정하는 등 인종·종교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국가임.

□ 원유 및 천연가스를 풍부하게 보유한 자원 부국이자 OPEC 회원국으로 에너지 자원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인당 GDP는 세계 5위 수준인 82,887달러로 추정됨.

□ 절대왕정 국가로 19세기 중반 이후 Al Thani 가문이 왕위를 세습하고 있음. 1995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Hamad 前국왕은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현재 그의 아들인 Tamim 국왕의 통치 하에 정치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실용주의 중립 외교노선을 추구하여 서방 국가들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분쟁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4. 18 수교 (북한과는 1993. 1. 11)

**주요협정**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84), 문화협력협정('88), 투자증진·보호협정('99), 항공협정('09), 이중과세방지협정('09), 군사협정('16)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339,097	420,152	526,565	자동차, 전력용기기, 기타정밀화학제품
수입	7,562,141	11,611,066	16,567,203	천연가스, 원유, 석유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95건, 78,452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1.2	0.7	-3.6	1.6	4.2
소비자물가상승률	0.1	-0.9	-2.5	2.3	5.0
재정수지/GDP	5.9	4.8	1.3	4.4	14.2

자료: IMF, EIU

### 2022년 카타르 경제는 FIFA 월드컵 개최와 에너지 수출가격 상승에 힘입어 4%대 성장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에너지 국제수요 감소의 여파로 -3.6%의 역성장에 그쳤던 카타르 경제는 2021년 코로나19 진정세 및 기저 효과에 힘입어 1.6%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수출가격 급등, FIFA 월드컵 개최에 따른 소매 및 관광업 부문의 성장<sup>1)</sup>으로 4.2%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 FIFA 월드컵 개최는 카타르의 소매, 관광업, 건설업 등 비석유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며 경제 다변화 노력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Oxford Economics는 2010년대 50% 수준이었던 비석유 부문의 GDP 비중이 2022년 말에는 관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의 성장으로 인해 65%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억제할 결과,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카타르산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카타르는 LNG 수출상대국 다변화와 LNG 수출가격 상승이라는 이중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음.
- 카타르는 2021년 기준 세계 LNG 수출물량의 20.7%를 차지한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임. 카타르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13.1%인 23.9조 m<sup>3</sup>로 세계 3위이며, 연간 생산량도 2021년 기준 1,770억 m<sup>3</sup>로 세계 5위임. 또한, 원유 매장량은 전 세계의 1.5%를 보유하여 세계 14위임.

[그림 1] 천연가스 국제가격 추이

(단위: US\$/MMBtu)



자료: Naver (원출처: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그림 2] 브렌트유 국제가격 추이

(단위: US\$/b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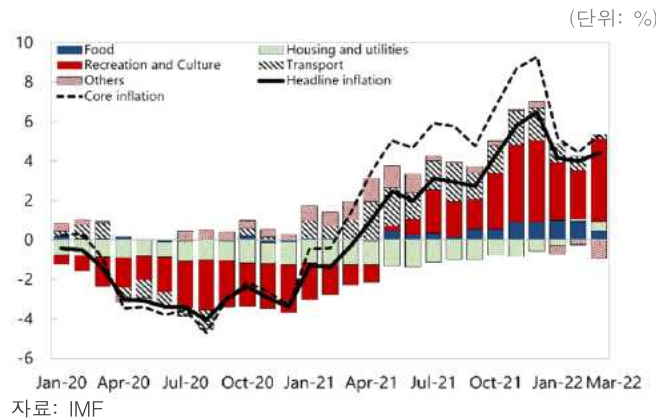
1) IHS Markit은 FIFA 월드컵 개최로 인해 카타르의 2022년 4분기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8.0%를 달성했다고 분석하였음.

## 국내경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에는 FIFA 월드컵 관련 수요 증가, 공급망 위기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의 결과 5.0%로 상승

- 2022년 카타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FIFA 월드컵 개최에 따른 내수 진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료품·원자재·에너지 등의 국제가격 상승 및 세계 공급망 위기로 인해 발생한 수요 증가 및 공급 감소, 주거비용 상승 등의 결과 전년(2.3%)의 2배가 넘는 5.0%를 기록하였음.
- 다만, IMF는 카타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3~24년 평균 3%, 그리고 2025~27년 평균 1.5%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FIFA 월드컵으로 인한 일시적 물가상승 요인의 소멸에 따른 부(負)의 기저효과, 카타르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수요 감소에 기여하고, 원자재 국제가격의 하향 안정 추세는 공급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에 따른 비석유 부문 각종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그림 3] 카타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품목별 구성 비율



### 2022년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으로 재정수지는 GDP의 14.2%에 달하는 흑자 달성

- Bloomberg에 따르면 카타르 정부는 2022년 FIFA 월드컵 관련 경기장 건설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약 2,20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나, 원유·천연가스 수출가격 상승으로 재정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2022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전년(4.4%)의 3배 이상인 14.2%를 기록하였음.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2020년 72.6%에서 2022년 45.3%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강화됨. Statista에 의하면 동 비율은 2022년부터 감소 추세를 이어가 2027년까지 총 10.2%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카타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재정수입 약 626억 달러(전년도 예산안 대비 16.3% 증가), 재정지출은 546억 달러로 책정되어 약 80억 달러의 재정수지 흑자가 예상됨.
- 재정수입 전망치의 전년 대비 증가의 주요 배경은 산유국 예산안 편성의 핵심 기준이라 할 국제유가 전망치의 상향 조정으로, 카타르 재무부는 2022년 예산안의 배럴당 55달러에서 2023년 예산안에서는 배럴당 65달러로 가정하여 재정수입 추정치를 산출하였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16,652	4,260	-2,986	26,319	60,287
경상수지/GDP	9.1	2.4	-2.1	14.7	26.7
상 품 수 지	50,981	41,581	27,137	60,339	95,319
상 품 수 출	84,288	72,935	51,504	87,203	128,798
상 품 수 입	33,307	31,354	24,367	26,864	33,479
외 환 보 유 액	28,538	37,066	36,836	37,235	40,451
총 외 채	198,214	242,612	270,116	290,031	296,638
총외채잔액/GDP	108.1	137.6	187.1	161.4	131.6
D.S.R.	6.9	7.5	9.4	6.9	7.7

자료: IMF, EIU

### 2022년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 전년 대비 급증 추정

- 카타르 경제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수출이 상품수출의 약 90%를 차지하여 에너지 부문에 의존도가 매우 높음.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유 및 천연가스 국제가격 급등과 유럽의 카타르산 LNG 수입 급증으로 경상수지가 GDP 대비 2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EIU는 경상수지 흑자가 에너지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2023~27년 평균 GDP의 14.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North Field East LNG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2027년에는 흑자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LNG에 대한 강력한 국제수요에 힘입어 카타르의 2023~27년 중 상품수지 흑자는 연간 GDP의 31.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서비스수지는 2022년에 FIFA 월드컵 특수로 관광 부문의 수입이 늘면서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2023년부터는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카타르 정부의 관광객 유치 증대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공공부채의 지속적인 감소와 이자 부담 감소에 힘입어 이전소득수지 적자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대외거래

### 1980년부터 미 달러당 3.64리얄 비율의 페그제 유지

- 카타르 중앙은행은 1980년부터 자국 화폐인 리얄화의 환율을 미 달러당 3.64리얄로 고정시키는 페그제를 유지하고 있음. 환율변동 위험의 제거와 그로 인한 정부의 대외차입비용 안정 및 수입물가 변동성 축소 등 페그제가 가져다주는 이점으로 인해 카타르 중앙은행은 향후에도 페그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카타르의 재정수지 및 상품수지 흑자 지속, 리얄화의 실질가치에 대한 하향 압력 발생 시 완충 작용을 해줄 중앙은행의 충분한 지급준비금(작년 11월 말 기준 458억 달러)과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 자산 등은 카타르 중앙은행의 페그제 지속에 대한 신뢰도를 뒷받침해줌.

## 외채상환능력

### 막대한 국부펀드(QIA), 국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용이성 등을 고려 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

- 카타르 정부는 2021년 기준 GDP의 2배 및 정부지출의 5배에 달하는 4,5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 (Qatar Investment Authority, QIA)를 보유하고 있음.
- 2022년에는 에너지 수출액 급증과 FIFA 월드컵 관련 특수에 힘입은 3.4%의 경제성장 및 총수출액 증가 (전년 대비 42.2% 증가 추정)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모두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2022년 연말 기준 외환보유액도 월평균수입액의 5.6개월분으로 추정되어 양호한 수준임.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 161.4%(2021) → 131.6%(2022<sup>e</sup>)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 250.2%(2021) → 180.0%(2022<sup>e</sup>)

- 2023년 3월 말 기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카타르에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국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D.S.R.도 지속적으로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됨.

## 구조적취약성

###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에너지 국제가격 변동 등 대외변수에 취약

- 카타르는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LNG 수출량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은 카타르 GDP의 40%, 정부재정의 80%, 수출의 90%를 차지함에 따라 원유·천연가스 국제가격 하락이 즉각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임.
- 원유·천연가스를 확실히 대체할 에너지원의 등장(신재생에너지 효율의 대폭 향상 등), 또는 원유·천연가스 공급 증가 등의 외부요인들은 카타르 경제에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음.

###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공산품의 높은 수입의존도 지속

-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이슬람권 일부 국가들의 대 카타르 단교 사태를 계기로 카타르 정부는 공산품 수입의존도를 낮추고자 국가 주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카타르의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8%에 그쳐 제조업의 발전이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

###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 앞 해외송금 등으로 만성적인 이전소득수지 적자 발생

- 카타르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 앞 해외송금 등에 따라 2019~21년 중 연평균 GDP의 9% 수준의 이전소득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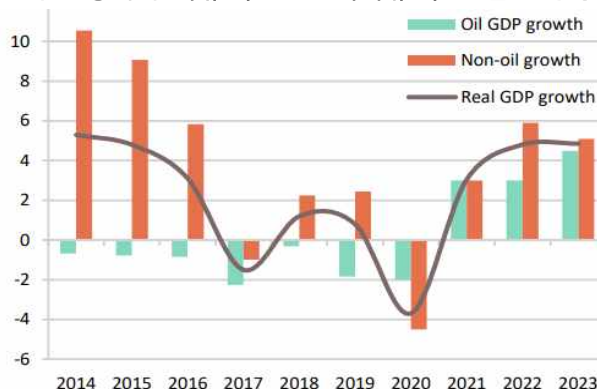
[표 1] 최근 4년 간 카타르 경상수지 추이

(단위:백만 리알)

구 분	2019	2020	2021	2022.1~9월
경상수지	15,394	-13,167	95,687	163,006
이전소득수지	-60,449	-45,258	-55,670	-45,999
이전소득수입	4,911	5,485	5,954	5,438
이전소득지출	-65,360	-50,743	-61,624	-51,437
(외국인노동자 송금액)	(-43,003)	(-38,619)	(-39,531)	(-32,972)

출처: 카타르 중앙은행

[그림 4] 카타르 경제의 석유 부문 및 비석유 부문 실질 성장률 추이(%)



출처: World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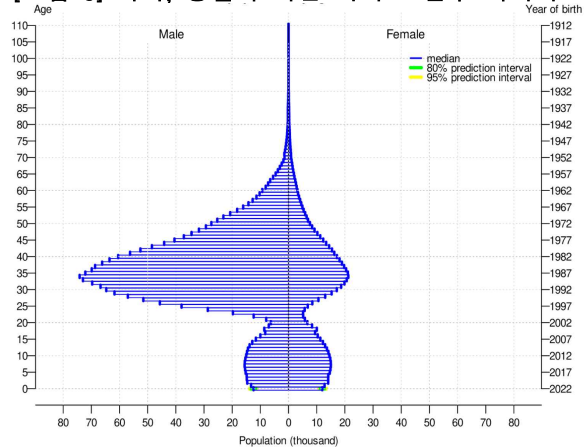


## 성장잠재력

전체 인구 중 14~49세가 74%이며, 외국인 비중이 약 85%를 차지함.

- 2021년 기준 카타르의 전체 인구 268만 명 중 20~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2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14~49세 인구는 1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4%임.
- 전체 인구의 약 85%가 외국인으로, 대부분 건설 분야 단순 노동자 및 단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함.
-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저임금 국가 출신(월 소득 500달러 이하)으로 구성되어 건설 분야 단순 노동 및 단순 서비스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음.
- 카타르 정부는 자국 시민들에게 무료 교육과 주거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높은 교육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5] 나이, 성별에 따른 카타르 인구 피라미드



자료: UN

##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가스전인 북부 가스전에서의 LNG 증산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및 에너지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도모

- 카타르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가스전인 북부 가스전(North Field)에서의 LNG 증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2027년 프로젝트 완료 시 2019년 대비 약 58% 증산된 연간 1,260만 톤의 LNG가 생산될 예정으로, 동 프로젝트를 통해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 동 프로젝트 규모는 최대 400억 달러로 총 2단계로 구성됨. 1단계(North Field East) 목표는 2025년까지 LNG 트레인(액화-정제 플랜트) 4개 증설로 연간 생산량 1,100만 톤 달성, 2단계(North Field South) 목표는 2027년까지 LNG 트레인 2개 추가 증설로 연간 생산량 1,260만 톤 달성임.
- 카타르는 2011년 주요 LNG 프로젝트 개발을 완료하여 에너지 부문의 생산량이 2013년 최고치인 하루 500만 BOE<sup>2)</sup>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20년까지 증산을 하지 않았으며, 동 기간 중 에너지 부문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Moody's는 카타르가 부분적으로 LNG 증산을 시작하는 2025년 4분기부터 에너지 부문이 카타르의 중장기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한 건설 부문 및 관련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로 비에너지 산업 부문의 성장도 전망하였음.
- 한편,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카타르는 EU의 주요 LNG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카타르와 장기 에너지 공급협정을 체결하였음.

2) 석유환산배럴(Barrel of oil equivalent)의 약자로, 1배럴의 원유가 연소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추정치임. 통상 원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 및 생산량을 하나의 단위로 합칠 때 사용됨.



## 성장잠재력

### 세계 2위 LNG 수출국이자 균형재정 유가가 낮은 자원 부국

- 2021년 기준 카타르는 전 세계 LNG 수출물량의 20.7%<sup>3)</sup>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13.1%인 23.9조 m<sup>3</sup>로 세계 3위, 연간 생산량은 1,770억 m<sup>3</sup>로 세계 5위 규모임.
- 원유 역시 풍부하여 세계 13위의 원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며,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원유 수출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균형재정 유가(breakeven oil price)\*를 유지하고 있음.  
\* 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 정부가 균형재정(재정수지가 0)을 달성할 수 있는 유가 수준
- 2022년 10월 발표된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Middle East & Central Asia)에 따르면 2022년 카타르의 균형재정 유가는 배럴당 48.1달러로, MENA 지역의 여타 원유 수출국들인 바레인(127.6달러), 알제리(169.2달러), 사우디아라비아(73.3달러), 오만(70.9달러), 리비아(69.7달러), 아랍에미리트(63.9달러), 이라크(60.7달러), 쿠웨이트(56.7달러)보다 낮음.

###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 카타르의 순위는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한 29위(총 141개국 대상)로, MENA 국가들 중 이스라엘(20위)과 아랍에미리트(25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들의 글로벌경쟁력지수(순위, 등락폭) : 아랍에미리트(25위, ↑2), 카타르(29위, ↑1), 사우디아라비아(36위, ↑3), 바레인(45위, ↑5), 쿠웨이트(46위, ↑8), 오만(53위, ↓6)
- 부문별로는 ICT 기술 채택(8위)과 상품 시장의 효율성(13위), 재정 시스템(22위) 분야 등에서 강점을 나타냈고, 거시경제 안정성(40위), 인적 자원의 기술 수준(40위) 등에 대한 분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로 남아 있음.
- 카타르는 2018년 5G 상용망 구축을 발표한 중동 지역 최초의 5G 도입국이자 성인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 비중이 99.7%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20년 기준 휴대전화 보급률이 132%를 기록하는 등 ICT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음.

3)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 기준이며, 세계 1위는 20.9%를 차지한 호주임.

## 정책성과

### 현지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밸류체인 육성 노력

- 지속 가능한 밸류체인의 육성을 위한 카타르 정부의 대표적인 현지화 정책은 '타우틴(TAWTEEN)'이라는 에너지 분야 공급망 프로그램으로, ①현지 재화 및 서비스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ICV(In-Country Value) 점수제도, ②현지화가 유망한 6개 분야\* 100대 투자 기회 제공, ③에너지 분야 공급자 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4)

\* 화학 및 금속, 엔지니어링 서비스, MRO(소모성 자재 및 유지보수), 디지털 기술, 산업 기자재, 해양 플랜트 기자재 및 서비스

- 2020년 7월부터 Qatar Energy를 포함한 15개 에너지 분야 기업에서 발주하는 모든 조달 입찰에 ICV 제출 요건을 적용하여 입찰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타우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25억 달러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와 현지 구매비율 확대(2019년 15% → 2023년 40%),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전망됨.

[표 2] ICV 점수 산정 공식

A	제품 및 서비스	현지 사용 재화 및 재료 비용	$\frac{A+B+C+D}{R}$ 매년 갱신 해야함.
		현지 사용 서비스 비용 및 인력 보상 비용	
B	인력 개발 트레이닝	인력 개발을 위해 카타르 국민과 거주인력에게 제공되는 트레이닝 비용	
C	공급자 개발	공급업체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 비용	
D	고정자산 투자	회사 자산의 감가상각 및 상각	
R	총수익	현지 총수익액	

출처: KOTRA (원출처: TAWTEEN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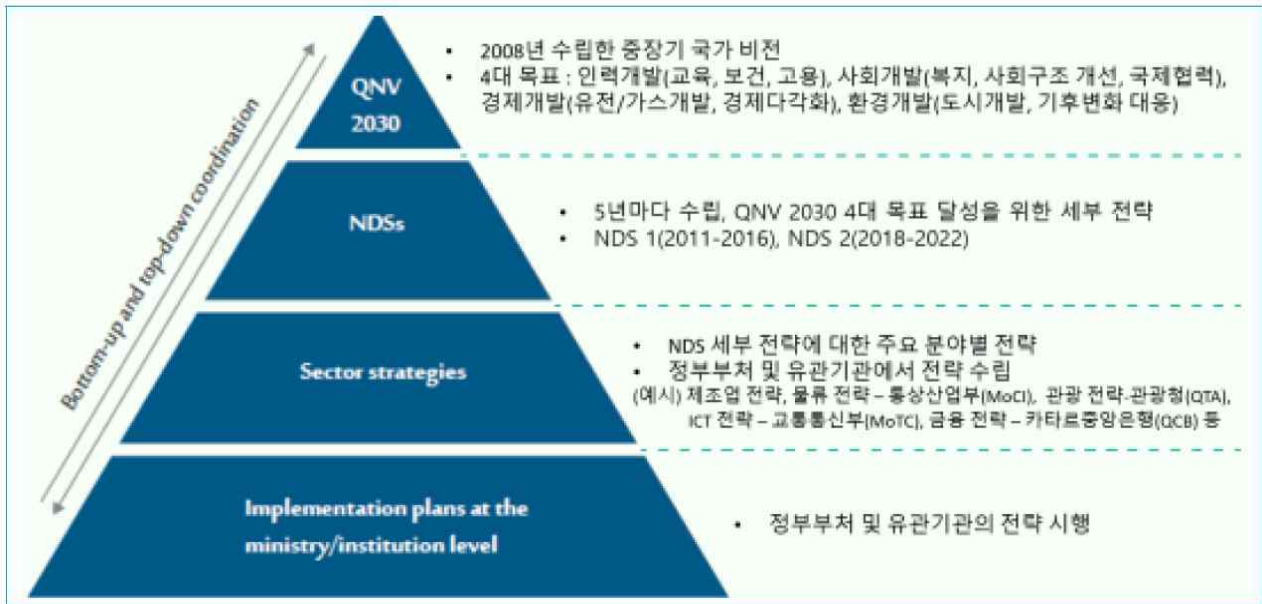
### "카타르 국가 비전 2030"(QNV 2030)에 기반한 중장기 국가 발전 추진

- 카타르 정부는 2008년 중장기 국가 발전계획인 "카타르 국가 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 약칭 QNV 2030)을 발표, 2030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선포하였음.
- QNV 2030은 4개의 발전 중점 추진 분야(인적자원, 사회, 경제, 환경)와 각 분야별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을 5년마다 수립해 4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발표한 '제1차 NDS 2011~16'의 경우 장기적인 에너지 고갈 대책 수립, 노동효율성 제고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제2차 NDS 2018~22'는 지난 전략의 성과와 한계점을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2016~30년)와 연계하여 보완코자 하였음.

4) 2022 카타르 진출전략(KOTRA)

## 정책성과

[그림 6]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운영 구조



자료: KOTRA (원출처: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PSA)<sup>5)</sup>

## 외국인투자법 개정 및 인근 국가들과의 외교 정상화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전망

- 카타르를 비롯한 GCC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편중된 자국 경제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음.
- 카타르 정부는 2019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전 산업 분야에 최대 100%의 외국인 지분 투자를 허용하고, 2020년 10월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자에게 거주 허가 및 영주권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발표하였음.
- 외국인 지분 100% 투자가 가능한 카타르경제자유구역(QFZA), 카타르과학기술단지(QSTP) 등을 운영하며 제조업, 석유화학, 첨단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산업다각화를 꾀하고 있음. 아울러 73만 리얄(2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투자자와 가족에 대해 거주 허가를 부여하고, 365만 리얄(100만 달러) 이상 투자자에게 의료, 교육 등을 포함한 영주권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과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상한은 최대 49%였으나, 내각의 결정에 따라 농업, 산업, 보건의료, 교육, 관광, 천연자원의 개발,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정보기술,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 한해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되었음.

5) 2022 카타르 진출전략(KOTRA)

## 정책성과

- 아울러 2021년 1월 카타르와 인근 국가들 간의 외교 정상화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는 카타르에 대한 투자매력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음.
  -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일부 아랍 국가들의 **대 카타르 단교 사태\*** 이후 카타르는 GCC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2018~21년의 4년 연속 외국인투자 순유입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 2021년 1월 단교 사태가 해소됨에 따라 FDI 유입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 카타르의 FDI 유입액(백만 달러, UNCTAD 기준): 986('17) → -2,186('18) → -2,813('19) → -2,434('20) → -1,093('21)
- 다만, 카타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에는 투자 유치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음.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실제 직접투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카타르 상사회사법과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통상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투자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내각의 승인 없이 금융 및 보험, 상업대리업 분야에 투자할 수 없고 내각 결정으로 공포한 기타 분야에도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

### 대 카타르 단교 사태

- 2017년 6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이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내전 중인 리비아 동부 지역 임시정부와 예멘, 몰디브, 서아프리카 모리타니와 모리셔스가 잇따라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에 동참
- 카타르와 국경을 접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은 카타르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육상/항공/해운 교통을 중단하는 한편, 카타르 주재 자국 외교인력을 모두 철수시킴과 동시에 자국 내 카타르 외교관들을 모두 추방하고, 카타르 출신 방문객이나 거주자들은 2주 내로 자국을 떠나라고 통보
- 카타르-이란 관계에 대한 주변국들의 해묵은 불만이 단교 사태의 배경이며, 단교 결정을 촉발한 도화선은 카타르 국영통신사가 보도한 셰이크 타미م 카타르 국왕의 연설 내용(군사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정당화할 명분이 없다"라고 발언하는 등 중동의 주변 국가들과 미국의 대 이란 정책을 비판)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카타르 정부는 이 기사가 해킹을 당해 만들어진 가짜 뉴스라고 즉각 부인했지만 국교 단절 사태를 초래
- 카타르에 단교를 선언한 이슬람 수니파 왕정국가들과 달리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의 총본산격으로, 두 종파는 1,400년이 넘는 갈등 지속 중 : 결국 단교 사태의 본질은 이슬람 신도의 85%를 차지하는 수니파 국가들과 15% 정도를 차지하는 시아파 국가 이란과의 종교적 갈등
- 1996년 카타르 왕실의 지원하에 '중동의 CNN'으로 불리는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출범한 이후 카타르와 주변국들 간의 갈등 증폭 : 중동의 전체 왕정들을 비판하는 보도를 자주 내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불만이 높아져,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7개국은 대부분 카타르가 언론을 이용해 선동을 일삼고 테러 조직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알자지라를 단교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
- 카타르 왕실이 아랍 주요국들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무슬림형제단,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 등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사실상 이들의 주요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단교 사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
- 2021년 1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에서 개최된 연례 GCC 정상회의에서 대 카타르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정 서명으로 단교 사태 해소

## 정치안정

### 타미م 국왕의 통치 하에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전망

- 카타르는 세습군주제 국가로, 2013년 6월 즉위한 타미م 국왕(1980년생)이 통치하고 있음. 국왕은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를 관할하고, 모든 법령의 비준 및 공포권을 갖고 있으며,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료 및 자문위원을 임명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IHS Markit은 타미م 국왕이 아랍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바레인) 주도의 대 카타르 단교 사태(2017.6월 ~2021.1월)를 민족주의 정서 조장과 내부 결속 강화에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아랍 4개국과 단교 사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슬림형제단, 살라피스트 성직자들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아울러 IHS Markit은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으로 시민 소요, 시위 등의 위험이 적으며 반대 정파가 없다는 견해를 근거로 카타르의 정치안정지수\*를 2021년 4분기 1.2점에서 2022년 4분기에는 1.0점으로 부여하였음.

\* 0점(Low Risk) ~ 10점(Extreme Risk)

## 사회안정

### 2022년 1인당 GDP는 세계 5위이며, 에너지 수출 수익을 통해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 제공

-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22)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카타르의 1인당 GDP(추정치)는 82,886달러로 세계 5위임.
- 카타르는 원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 수출 수익을 통해 축적한 부(富)를 바탕으로 자국민에 대해 개인 소득세 면제, 교육 및 주택 무상 제공 등 풍부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2년 영국 Exeter 대학교의 걸프 연구 센터에서 발표한 아랍 지역 국가별 삶의 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카타르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아랍 지역 20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음.
- 2022 경제평화연구소(IEP) 세계평화지수에서도 카타르는 MENA 지역 1위, 전 세계 23위를 차지하였음.

## 사회안정

### Moody's는 카타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으로 평가

- Moody's는 ESG 요소가 카타르의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경제·재정 의존도가 높아 탈탄소 정책과 관련한 환경 위험에 부정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다만, 낮은 수준의 에너지 자원 생산 비용과 상대적으로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음. 아울러 카타르가 극심한 물 부족 국가로 경제성장, 인구 증가 등으로 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부담요인으로 지적되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사회)** 최근의 높은 인구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인구 대비 낮은 수준의 자국민 비중(약 10% 수준)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 제공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을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재정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와 입법 및 집행 기구의 질적 개선을 반영하여 카타르의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1등급(Positive)으로 평가함.

### 2022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9계단 하락한 40위 기록

-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카타르의 평점은 58점(100점 만점)으로 전년보다 5점 하락하였으며, 순위는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0위로 전년 대비 9계단 하락하였음. 이는 GCC 국가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수준임.
- TI는 카타르의 평점 및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FIFA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의 뇌물 혐의, 경기장 및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의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성소수자 방문객 등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꼽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부패를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매커니즘의 부재라고 지적함.
-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카타르가 속한 MENA 지역의 평균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4년 연속 39점을 기록 중으로, MENA 지역 내에서는 아랍에미리트(67점, 24위)가 최고점을, 시리아(13점, 178위)가 최저점을 부여받았음.



## 국제관계

###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 수행

- 카타르는 국가의 실리를 우선시하는 외교정책 원칙에 따라 이란,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등 시아파 세력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서로 대립하는 중동 지역에서 중립 외교를 추구하여, 이란과 무슬림형제단 등 역내 반미 진영 국가/세력과의 적절한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카타르는 2020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도하 협정)을 중재한 바 있으며, 2021년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에는 탈레반 지도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 고위층 사이에서 핵심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음. 아울러 Financial Times는 2022년 3월 카타르가 미국과 이란의 요청에 따라 이란 핵협정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복원을 위한 중재에 힘쓰고 있다고 보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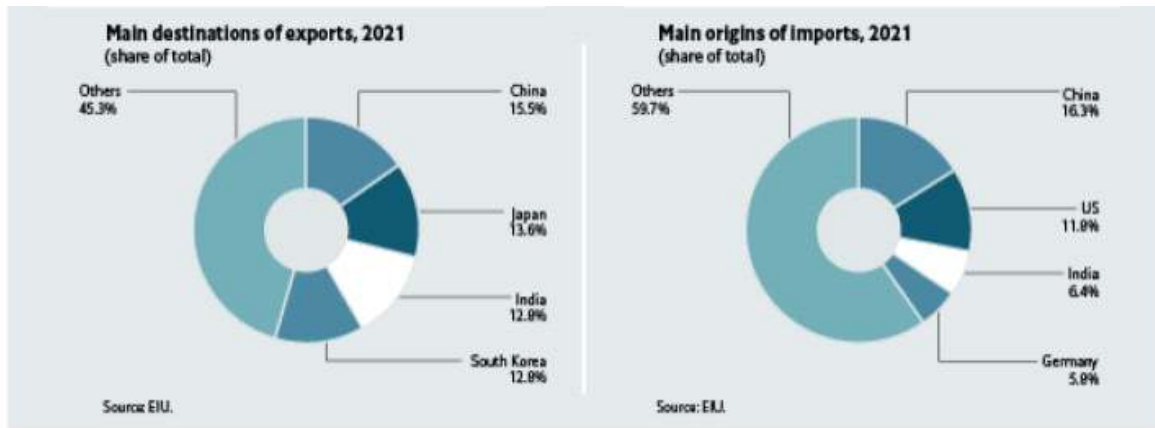
### 중립외교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중국과도 교류 강화

- **(미국)** 미국은 2021년 기준 카타르의 2위 수입상대국(비중 11.9%)으로, 무역 외에 투자·항공·군사·교육 분야에서 카타르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
  - 2003년 중동 최대의 미 중부사령부 기지를 유치한 이후 미군 1만 명 및 국제연합군이 카타르에 주둔 중이며, 2020년 제3회 전략대화(3rd US-Qatar Strategic Dialogue)를 통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였음.
  - 카타르는 오랫동안 미국과 탈레반 간의 대화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으며, 탈레반 정권이 미국(및 다른 모든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도하에 아프가니스탄 미국 외교사절단을 유치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에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처가 될 수 있는 카타르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여 2022년 3월 카타르를 공식적으로 非나토(non-NATO)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 \* 非나토 동맹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 동맹국을 가리키며, 이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걸프 지역에서는 카타르 외에 쿠웨이트(2004년)와 바레인(2004년)이 非나토 동맹국의 지위를 부여받았음.
- **(중국)** 중국은 2021년 기준 카타르의 1위 수출상대국(비중 15.5%)이자 1위 수입상대국(비중 16.3%)으로, 최근에는 무역 외에 투자, 건설, IT(5G) 및 에너지 부문에서도 카타르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
  - GlobalData에 따르면 카타르 FIFA 월드컵에서 완다그룹, 비보 이동통신, 명뉴유업, 하이센스 등 중국 기업들의 스폰서 총액은 13억 9,500만 달러에 이르렀음.
  - 2022년 11월 카타르 국영 석유기업 QatarEnergy와 중국 최대의 국영 석유화학 기업 SINOPEC은 2026년부터 27년 간 카타르의 North Field East LNG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연간 400만 톤의 LNG를 중국에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음. 동 계약에 의한 공급 예상금액은 약 610억 달러로 LNG 산업 역사상 최장,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으로 평가됨.



## 국제관계

[그림 7] 2021년 기준 카타르의 주요 수출상대국(왼쪽)과 수입상대국(오른쪽)



자료: EIU

## 외채상환태도

###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으며, 양호한 수준의 외채상환태도 유지 중

-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카타르에 대한 지원잔액 226억 2,117만 달러(단기 4억 2,610만 달러, 중장기 221억 9,507만 달러) 중 연체금액은 없음. 현재까지 외채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카타르의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3.01)	3등급 (2022.01)
Moody's	Aa3 (2022.11)	Aa3 (2018.07)
Fitch	AA- (2023.03)	AA- (2018.06)

### OECD와 국제신용평가3사 모두 카타르에 대해 양호한 국가신용등급 부여

- OECD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카타르가 2021년 기준 GDP의 2배 및 정부지출의 5배에 달하는 4,5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점, 2021년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어 재정여력이 확충된 점, 2021년 1월 아랍 4개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점 등을 반영하여 카타르에 대해 양호한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카타르는 세계 최대 단일 가스전인 북부 가스전에서의 천연가스 증산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 및 에너지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의 주요 LNG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음. 2022년에는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FIFA 월드컵 개최 등의 영향으로 4.2%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으로 재정수지는 예상보다 큰 흑자가 전망되어, 2022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4.4%)보다 대폭 상승한 14.2%로 추정됨. 경상수지 역시 GDP 대비 26.7%의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기준 GDP의 2배 및 정부지출의 5배에 달하는 4,5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QIA)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가 카타르에 부여한 신용등급(Moody's Aa3, Fitch AA-) 등을 고려 시 국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여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됨.

## 중동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성장률 (%)	4.2	8.2	7.4	8.7
경상수지/GDP(%)	26.7	29.2	22.3	13.6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5.6	7.9	3.2	19.0
외채상환액/총수출(%)	7.7	3.0	19.8	7.0
총외채잔액/GDP(%)	131.6	67.7	72.2	26.3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161.5	74.0	75.1	18.6
OECD	3	2	2	2
Moody's	Aa3	A1	Aa2	A1
Fitch	AA-	AA-	AA	A